



[산업] JY 구속 위기에 "선처해달라" 靑 국민청원 등장 08



Economy

코스피	2873.47 (0.00)	코스닥	968.42 (0.00)
금리 (미국 3년)	0.976 (-0.002)	환율 (원/달러)	1086.30 (-5.80) (12.31)



文 대통령, 새해 첫 메시지

# “일상의 회복으로 국민께 보답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흰 소의 해'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 했다.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걸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과 부동산 이슈 등으로 심각했던 사회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격변의 한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SNS에 올린 메시지에서도 문 대통령은 “미증유의 현실과 마주쳐 모든 인류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상생을 실천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의 힘으로 새해 우리는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며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강조한 만큼 올해 또한 노력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과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방역 일선에서 애써오신 분들과 희망을 간직해주신 국민들께 ‘국민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2021년 대한민국의 첫 걸음을 국민들과 함께 힘차게 내딛는다. 국민이 희망이고, 자랑”이라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신축년 희망·우려 공존, 불확실성 시대

# 코로나 극복 한마음... 방역·경제 균형 속제

## 2021 미래를 코리아 / 코로나19 딛고 재도약

‘마스크’로 가려졌던 2020년이 훌쩍 지나간 가운데 2021년은 우리에게 하얀 치아를 내놓고 활짝 웃는 얼굴로 다가올 수 있을까.

아직은 ‘희망’과 ‘우려’가 반반씩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구촌이 모두 지난해를 힘겹게 보낸 가운데 “2020년보다 나아 나겠지”라는 기대와 “백신이 제대로 먹힐까”하는 걱정이 함께 밀려오면서다.

이 때문에 2021년 올해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방역’과 안정적인 미래, 특히 공정한 분배를 위한 ‘경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 분석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경제전문가 343명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정부의 중점정책으로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을 최우선 순위로 꼽은 가운데 그 중에서도 ‘경제·방역간 균형 도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지난해 -1.1%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는 3.2%로 반등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로 KDI는 3.1%를, 한국은행은 3.0%로 각각 예상했다. 이들 기관의 분석만 놓고 보면 2021년 경제는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는 모양새다.



2021년 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부산 광안리 바닷가 광안대교 뒤로 떠오르는 해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응원하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황소상은 증시활황을 의미합니다. 소처럼, 우리 경제도 힘차고 우직하게 한발씩 나아가는 신축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부산 광안리=손진영 기자

올해 정부 중점정책 설문조사 /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최우선

백신 상용화 앞두고 효과 기대 / 경제성장률 3.2%로 반등 예상 / 소상공인 지원정책 뒷받침 돼야

문제는 여전히 코로나19다. 일부 글로벌 제약사들이 백신을 개발해 내놓고, 각 나라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실제 백신 접종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도 전에 겨울철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일부에선 변종 바이러스까지 생기면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학 전문가들은 질병 발생을 억제하고, 사망을 줄이고, 바이러스 전파를 감소시켜 유행 규모를 축소해야 제대로 된 백신이라고 판단하고 있

(2021년 경제전망)

	2020년	2021년
경제성장률(%)	△1.1	3.2
취업자증감(만명)	△22	15
고용률(%, 15~64세)	65.8	65.9
소비자물가(%)	0.5	1.1
경상수지(억불)	680	630
수출(%, 통관)	△6.2	8.6
수입(%, 통관)	△7.5	9.3

다. 이 기준대로라면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의 ‘효과’에 대해 선부른 판단을 하기엔 아직 이른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 등을 통해 바이러스의 전파를 최소화하는 길이 지금으로선 최선일 수밖에

없다. 일부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는데는 몇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우울한 예측까지 하고 있다.

방역과 함께 경제 문제도 큰 숙제다. 경제는 삶의 지속가능성을 약속해준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다. 일자리가 있어야 돈을 벌고, 소비를 하고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앞서 KDI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자수가 3월 -91만5000명, 4월 -108만4000명, 5월 -91만9000명 등 3~9월까지 약 80만~1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지역서비스산업에서 대부분의 일자리가 줄었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2021년엔 다시 활짝

모두가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더 큰 꿈을 꾸는 밝은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SAMSUNG